

# 서울 YMCA 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 평가연구

한 명 섭\*

- I. 서 론
- II. 상담사례로 본 청소년의 현실
- III. 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
- IV. 결론과 제언

## I. 서 론

사회 곳곳에서 ‘요즘 아이들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문제는 극단의 현상을 나타내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데 놓여 있다. 상당부분 청소년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기존 사회체계의 구조와 문화와 관련을 맺고 형성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지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청되며, 청소년을 보는 시각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청소년들은 일주일간 부모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 34분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화의 내용도 성적이나 진로에 국한되어 있는 가족관계 속에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 국민학교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 세계 1백20위를 자랑하는 열악한 교육현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는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며 소수의 우등생 외에는 모두가 열등생이 되어야 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상실하여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개발과 성장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손실로 평가되는 지역사회공동체의 해체는 가족과 학교의 상실된 기능을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체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한 지지와 조력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의 적극적인 전환이다. 청소년 문제가 결과지향적이고 비행 및 처벌중심의 방법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지

\*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실장

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어린이와 성인사이의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통제와 지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을 타율적, 획일적, 무비판적 존재로 만들어 문제상황 속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가속화되어가는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청소년 통제나 지도 관점의 단기적, 처방적 방법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자신을 자율적, 창조적 존재로 그리고 문제해결의 주체로 인식함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들이 개발·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보고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프로그램 및 앞으로 실시될 청소년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중요한 개념으로서는 지지support, 관계relationship, 자율, 참여, 공동체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 II. 상담사례로 본 청소년의 현실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던 기출청소년의 문제를 원인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학교 요인, 가정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기타 요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일어나고 있으나 보다 주된 문제를 중점으로 분석한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개설 이래 1년간 청소년쉼터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면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 학교교육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외 성폭력, 입양문제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기타의 요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 가정적 요인

YMCA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가족의 책임이 자기 자신(34.5%), 부모(31.0%), 사회제도(23.7%)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나 가정의 책임은 자신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만들어 나가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는 곳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불신, 낮은 자아정체감, 소외 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얻으려 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관련 요인은 기출청소년 대부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직접적인 기출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잠재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례 1) 부모의 불화로 기출한 고등학생

강남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담자는 수능능력 1차 시험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다.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무작정 집을 나왔다. 자식들이 다 컸는데도 그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부모님이 싫다고 한다. 아버지는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가사일만 하고 있다. 가족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크게 없어 밖에서 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 가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담자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 원래는 지

방에서 살았으나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문제로 어머니와 아이들은 서울에 따로 올라와 살았고 가족이 모두 모여 산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 가족이 떨어져 살았을 때에도 부모님은 자주 싸웠으며 이 때문에 가정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이었다. 이런 가정분위기 속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싫은 내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빠른 시일내에 독립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며 가능하다면 대학보다는 외국 유학을 바라고 있다.

청소년들은 가정의 분위기 특히 부모의 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고 안정되면 스스로 행복한 가족이라고 느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행을 느낀다. 가족간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며 부모가 서로에게 갖는 적대적 감정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위 사례의 내담자는 부모 모두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현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냈다.

#### 〈사례 2〉 아버지의 강력한 권위에 억눌린 암전한 문제아

남루한 옷차림, 자신감 없는 위축된 모습을 한 내담자는 2달간의 가출 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쉼터에 오게 되었다. 내담자의 가출동기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였으나 이 사실을 아버지는 알지 못한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식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대학까지 마치고 ‘넥타이 매고 사무 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다. 때문에 큰 아들인 내담자는 성적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90점이상, 1등’이 아니면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내담자는 국민학교 때부터 도벽이 있었고 거짓말도 심하게 하였다고 한다. 내담자는 국민학

교 4학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이유는 담임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었고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가출이 시작되었는데 집단적이거나 비행을 일삼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나 내담자에 대한 교사의 인상도 좋은 편이다.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을 자퇴한 상태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아버지의 간섭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고 사실은 학교에 다니며 다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아버지는 내담자가 다시는 공부할 마음이 없다고 단정짓고 기술훈련원에 몇 년쯤 보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낮은 학력, 육체노동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대표하는 요인들이다. 반드시 낮은 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경험하고자 원한다. 여기에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가출 청소년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 부모중 아버지와의 갈등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 권위의 존재였다. 전통 사회에서 가정은 자녀교육의 장(場)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로, 자녀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최소화된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맹목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청소년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간섭’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적, 통제적, 폐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반항적, 공격적 태도를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사례 3〉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아이

내담자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정상적으로 지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내담자가 백일 무렵부터 해외취업을 나갔으며 어머니는 이때부터 올 봄까지 일년에 2회이상 가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가정이나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두번 정도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같아 포기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아버지가 귀국할 후에도 평탄치 않은 가정 분위기였으며 부부싸움이 잦고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가출하면 이모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활했다. 내담자가 잦은 가출을 하자 부모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녀 성장기에 부모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 사례에서 내담자는 유아기부터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양육된 경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외모나 행동만으로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얍전하고 내성적이다. 그러나 이 내담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극심한 무력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과의 직면을 피한다는 점이다. 이런 행동이나 사고의 특징은 많은 가출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양육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부모의 무책임한 모습에 체념한 태도를 보였다.

## 2. 학교교육관련 요인

한 조사에 의하면 30%가 청소년 비행이나 탈선의 중요 요인으로 성적위주의 학교교육풍토를 들고 있다.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학교가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가 지식이나 기술을 전담하지만 인성교육은 포기하

고 있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성적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속에서는 능히 대학에 갈 수 있고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학생들은 몇명 안되는 우등생들이다.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교사의 인정을 못받을 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만이 쌓여 간다. 대학포기자로 표현되는 좌절과 상실의 경험을 가득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따뜻한 관심과 지지, 적절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학력위주 엘리트 교육의 극복,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등을 요청하고 있다.

〈사례 4〉 제과기술자가 되고싶은 인문계 여고생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2학년인 내담자는 지금 제과기술자가 되는게 희망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대학에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망했으나 점차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는 대학을 포기한 학생 중에서 고3 기간 동안 타 기술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위탁훈련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아무런 목표 없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기술을 배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았을 때 제과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런 내담자의 의사를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었다. 특히 부모님은 심하게 반대하였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학에는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제 3달만 있으며 고3이 되는데 아직도 태도가 누그러들지 않아 이제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선택, 결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고 한다.

교육문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지적되는 것

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다. 대학입시에 탈락할 수 밖에 3/4의 청소년은 아무런 준비없이 학교를 나갈 수 밖에 없다. 최근 학교 내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이 실시한 1993년 10월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약 1%의 학생들만이 학교의 진로교육에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부모가 기술교육을 받는 일을 꺼려하는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직업이나 학벌이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통념이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에 도전도 하기 전에 좌절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사례 5〉 선생님의 체벌에 진저리가 난 특지고 학생들

특지고 1학년 재학 중인 남학생 내담자 2명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는게 싫어서 기출하였다. 특지고는 정규학교에 진학하는데 실패한 청소년들이 가는 교육기관으로서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지고의 문화는 일반 정규학교의 문화와 사뭇 다르다. 그들은 공부나 성적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선후배 관계에서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선생님도 학생들의 ‘군기’를 잡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내담자들은 학교생활에 별로 의미를 못느끼고 있었으며 가끔 결석을 하는 편인데, 결석을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때리기부터 하며, 결석문제 이외에 사소한 문제로도 자주 때리는데 그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 싫은 것보다도 맞는 것이 지겨워서 학교가기 싫다’고 한다.

체벌이 인간의 발달이나 교육 그 어느 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재론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규명된 사실이다. 우리의 교육전통에서는 체벌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만남, 신뢰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교육현실에서 체벌은 청소년의 자아를 왜곡시키고 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간으로 만들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특지고 학생의 경우 ‘실패자’라는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게 되는 교사의 체벌은 청소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성향을 갖게 하여 기출 내지는 비행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

#### 〈사례 6〉 내자식만은 절대로...

내담자는 보통키에 통통하고 귀티나게 생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기출하려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다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쉼터를 찾아왔다. 내담자의 성적은 국민학교 때부터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왔으며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계속 상위권이었으나 방학전에 본 시험에서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성적이 많이 떨어지자 교사인 어머니가 내담자에게 학습계획표를 짜주었고 내담자는 이 계획표에 의해 방학을 보내야 했다. 내담자는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부터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성적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가끔 이유없이 울고 싶어진다고 하였다.

성적에 대한 고민은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우등생이며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받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평가를 지속시키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중압감에 또 다시 시달리게 된다. 심한 경우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데 극단적인 이기주의, 경쟁주의, 불신의 태도, 심리적으로는 불안, 현실도피 등을 나타내면서 신경증적 문

계를 일으키게도 된다. 성적·학벌위주의 사회풍토는 청소년들을 말 잘듣고 규칙에 얽매어 사는 정형화된 인간으로 키워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의나 의문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좌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사례 7〉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아이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시골에서 어머니와 살던 내담자는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에 의해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다. 걸핏하면 손부터 올라오는 아버지 밑에서 많이 맞으며 자랐다. 이런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때 친구들과 집단 가출을 하였으나 곧 경찰에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는 '무기정학'을 내렸고 이 기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하루종일 학생부실에서 매일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쓰는 것이었다. 이것이 견딜 수 없어 다시 이틀간 결석을 하자 이번에는 자퇴와 전학 중 양자택일을 권했고 내담자는 결국 자퇴하게 되었다. 중3 겨울방학을 열흘 앞둔 날에 일어난 일이다. 내담자는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위의 사례는 학교교육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철학과 교육프로그램의 빈곤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쉼터를 이용한 가출 청소년중 많은 수가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으며 자퇴전에 두세번의 유·무기정학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1-2주의 징계기간 동안 학생부실이나 상담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매일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반성문을 쓰는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반성이나 자기성찰보다는 선생님의 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빨리 징

계에서 풀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결국 학교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방법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두세번 정도 반복되면 학교에서는 자퇴나 전학을 권하게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자퇴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의 퇴학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자기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방황하게 된다.

### 3. 환경적 요인

인간성은 환경이 길러낸다.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환경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환경은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교 주변, 주택가에 아무런 장치없이 퍼져있는 유해시설, 폭력·외설적인 대중매체, 빈곤지역의 비교육적 환경 등 청소년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퇴폐향락적인 상업주의로 몰든 사회환경은 청소년들의 전전한 발달을 저해하며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한 사회환경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례 8〉 발 붙힐 곳이 없는 아이들

내담자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 선후배 관계인데, 그 지역은 빈곤지역으로서 그 곳에 사는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학교를 자퇴한 상태이며 남녀 10여명이 패거리로 번갈아 몰려다니며 상업적으로 가출을 하고, 남의 집 옥상 물탱크실, 한강변의 빈집, 친구집, 지하도 등을 떠돌아 다니며 지내고, 노래방 등에서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며 필요할 때 가끔씩 집에 귀가하여 며칠 가랑 지내다가 다시 가출을 했다. 이들은 가출문제 이

외에도 거짓말과 도벽, 가스, 본드와 같은 약물남용, 패싸움, 문란한 성관계 등 사소한 지위비행에서 심한 비행문제까지 가지고 있는 등 병리적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학교다녀서 뭐해요’, ‘그냥 노는게 재미있어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학교 안가요’라고 한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학교교육 자체가 그들에게 인내할 수 없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것도 그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학교를 떠난 이들은 마땅히 갈 곳도 없이 공원이나 놀이터를 떠돌다가 싫증이 나면 노래방, 술집 등 성인 위락시설을 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담자들은 가정 에 대해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술만 먹으면 때리는데 어떻게 집에 있고 싶겠어요?’라고 말한다. 사실상 이들은 학교, 사회, 가정 어디에서도 적절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을 받아 들여 줄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으며 그 때문에 이들은 패거리 속에 끼어야만이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갈 곳 없고 놀 곳 없으면 결국 그들은 나름대로의 갈 곳과 놀 곳을 찾는다.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제없는 성인 위락시설, 각종 유해환경 등은 이들이 찾아낸 갈 곳이며 놀 곳인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 건전한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만한 청소년 전용시설,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부족은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유도한다.

#### 4. 개인적 요인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

로서 주변인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 시기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좌절, 소외, 불안, 우울, 고인 등에 사로잡히기 쉬우며, 이러한 문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할 때 부적응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청소년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대개 개인적 문제가 결부된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주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개념, 무책임성, 충동성 등과 같은 성격적 문제, 잘못 형성된 교우관계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 〈사례 9〉 목적과 의미가 없는 생활

내담자는 17세로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상태이다. 내담자는 하얀 얼굴에 눈에 초점이 없으며 양쪽 귀를 각각 두곳 뚫고 귀거리를 하였다. 내담자는 국민학교때부터 상습가출과 도벽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문제로 아버지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었다. 내담자의 생활은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는 중산층이었으며 내담자 자신도 돈에 대한 문제는 가끔 집에서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때 물론 집의 돈을 훔친다는 죄의식은 전혀 없었다. 내담자가 학교를 중퇴한 이유는 ‘그냥 지겹고... 다니기 싫어서’이며, 내담자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20살이 되면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줄 것인가 또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기술 등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서는 ‘할 필요없다’, 왜 벌써 그런 것을 걱정해야 하나, 미리 생각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닥치면 그때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한다. 현재 떠돌아다니는 부랑아 같은 자기상에 대해서도 ‘그게 좋은데 뭐 어찌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하면서 살거예요’라고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내담자는 낮은 자아감, 정체감 혼동, 무책임감, 무목적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나 의식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상태이다.

청소년비행이나 탈선 등의 문제가 공격성, 충동성, 낮은 자아개념 등 여러 가지 심리,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각 개인의 심리문제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한 개인의 성숙 뿐 아니라 그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 성숙이 필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내면적인 갈등, 고민,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인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사실 대화가 없는 가정, 성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병리적인 사회문화 등 청소년의 모범이 되어주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사례 10〉 친구따라 강남간다

중학교 1년 재학생인 여학생 내담자 4명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며 00월 00일 하교 후 서로 놀다가 일시적 충동으로 오후 6시에 가출한 사례이다.

내담자들은 서로 가정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같이 가출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날 당장 집을 나왔다. 이들의 가출계획은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함께 집을 얻어 살려는 것이었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내담자들은 집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함께 살고 싶어했으

며, 함께 가출하였기 때문에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집단동체감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 충동에서 혼자 벗어나오기가 힘들다. 청소년들은 동년배의 집단을 형성하여 그 안에 속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집단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 또래집단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관계일 때는 서로의 성숙을 돕지만, 잘못 형성되고 병리적일 때는 또래집단의 부정적인 요인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병리적으로 잘못 형성된 또래집단에서 영향력 강한 동료가 비행이나 탈선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동료들이 이를 저지해 주는 힘보다는 이에 동조하는 힘이 강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함께 있으면 죄의식, 불안감 등이 감소하여 쉽게 비행이나 탈선을 저지르기도 한다.

#### 5. 기타요인

가정, 학교, 사회환경, 개인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 및 제도와 관련된 성폭력, 입양, 청소년노동착취 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사례 11〉 성폭행 당한 이후 부적응적인 문제로 가출한 사례

내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중 2 올라와서 3월경에 학교 근처에서 30대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사건은 내담자의 아버지에 의해 고소되었으나 가해자는 6개월만에 풀려나와 내담자가 사는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내담자는 성폭행사건 이후 자신도 알 수 없는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학교생활을 유지할 심리적 능력이 상실되어 휴학할 생각인데 이에 대해 내담자의 아버지나 선생님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담자의 어머니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며, 아버지는 내담자와 가족 전체에 대해 자상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나 생계유지에 급급한 상황으로써 적극적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내담자는 성폭행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학교와 문제해결에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의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왜곡된 여성의 정조와 순결이데올로기, 기부장적인 문화, 성적 쾌락을 부추기고 극히 비인간적인 성행태를 조장하는 성산업 등 남성의 성폭력을 방조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성폭력피해는 신체적 손상이외에 공포, 분노, 퇴행, 열등감, 자기혐오 등의 정서적 문제, 자이존증감의 와해, 무력감, 만성우울증, 신경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으며 그 후유증이 장기적이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 〈사례 12〉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가 필요한 아이

내담자는 중학교 1학년이다. 첫눈에 보기에는 부자집 막내딸 같은 인상이며 말 수도 많은 편이고 얼굴표정도 밝은 편이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같이 보인다. 실제로 국민학교 때에는 전교 어린이 부회장을 맡았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담자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자신이 고아라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입양된 집인데 그 전에 한 번 더 입양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입양은 3살무렵이었는데 1년후 양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양되어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 지금의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현재의 부모는 아들만 3형제를 두고 딸이 없는 것이 아쉬워 내담자를 입양하였다. 아버지는 경제능력이 거의 없으나 어머니는 생활력이 강하여 가정형편은 부유한 편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오빠들과 자신이 차별받는다느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1등한 성적표를 가져와도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을 보내지 않았으며 용돈은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었다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도둑이 있었는데 필요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집 마당에 묻어두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집안에서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는 경우 내담자가 자주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내담자는 수표 70만원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 이웃집을 전전하며 두달정도 지낸 후 집에 들어갔으나 내담자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부모는 이미 파양수속을 밟고 있다고 한다. 내담자는 입양된 지 10여년 만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다.

입양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며 보호되고 양육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부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위의 내용은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파양의 경우 입양이동 내지는 청소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의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제도는 양부모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쉽게 인위적으로 자녀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입장만 참작되고 아동과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제도

이다. 그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 충격이다. 대부분의 입양가정에서는 입양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입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작스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내담자의 과잉행동, 심한 애착적 행동, 또래관계 부적응 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사례 13〉 노동착취의 대상인 청소년들

내담자는 중학교 3학년이며 1년 전부터 자신이 입양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던 중 가출하게 되었다. 가출 후 동대문 시장 근처의 공장에서 미싱일을 하였는데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조명도 어두운 작업장에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출한 아이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밤 8, 9시까지 쉬지 않고 미싱을 돌리는데 한달에 10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사장에게 월급이나 작업조건에 대해 불평을 하면 집에 연락해 잡아가라고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출청소년은 의식주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집에서 나올 경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안정되게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므로 중·소공장이나 분식집, 레스토랑,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을 하게 되고 이를 악용하는 업주에 의해 법적인 보

호는 전혀 받지못한 채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Ⅲ. 청소년쉼터의 내용과 평가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에서는 ‘청소년의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역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프로그램 중 또래상담자교육, 위탁교육,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 1. 또래상담자교육

동료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에는 동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 시기의 혼란스러운 감정, 의문점 그리고 희망을 동료와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또래문화는 지적인 교육만을 강요하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점차로 왜곡되어 가고 있으며 친구라는 개념을 잃어 가고 있다. 그들은 바로 옆의 짝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험때는 친구의 노트를 훑쳐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적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적응력이 약해지고 무력화, 비인간화 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또래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주체로 보고 그들이 자신의 또래친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또래상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또래청소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의미있는 활동이며, 청소년이 이러한 의미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함께 봉사정신과 공동

체 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래상담자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일반 고등학생이었으며, 본 교육훈련프로그램 3시간씩 6일간 18시간, 후속교육프로그램 1박 2일 MT 20시간으로 총 38시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짜여졌고, 내용은 상담, 심리, 의사소통훈련 및 인간관계훈련(가치관 명료화를 위한 집단상담)을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1차, 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교육생은 각각 12명, 9명이었다. 본 교육프로그램에서 1부는 주로 심리, 상담 교육 및 의사소통기법과 같은 이론적인 내용을 실험이나 수수께끼놀이, 사례, 역할극 등으로 구성하여 또래상담 조력활동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부의 인간관계훈련은 가치관명료화프로그램으로 가치개념의 상대성을 이해함으로써 아주 다른 가치체계라도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키워주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그의 성격검사와 적성검사를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 및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교육시간 외에 실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을 마친 21명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후속교육프로그램은 1차, 2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수료생 총 21명 중에서 19명이 참가하였다. 후속교육프로그램인 MT는 1차, 2차 교육 참가 집단간의 친밀감 형성과 자기개방 및 타인 이해를 위한 인간관계훈련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되었다. 후속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19명의 학생에게 상담자원활동자격을 주는 또래상담원증을 주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상담, 심리, 의사소통훈련, 가치관 명료화를 위한 인간관계훈련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나, 상담훈련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이 어려웠다. 우선은 교육생들의 프로그

램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쉽고 평이하며 가능하면 재미있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담이론이나 기법을 다루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교육시간 부족으로 실제적인 상담기법에 대한 훈련이나 사례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었다. 본 교육훈련 및 후속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태도가 적극적이고 진지하였으며, 그의 성격검사와 적성검사를 교육시간과는 별도로 실시하였는데 성격검사는 21명 전원이 받았고 적성검사는 17명의 학생이 받아 이에 대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교육생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하며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후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교육을 통해 자기성장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평가가 많았다.

교육생들은 교육훈련 후 상담 자원활동과 지속적인 모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상담자원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생 전원이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학기중에는 자유롭게, 방학중에는 특별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속적인 모임은 매월 월례회 형식으로 모임을 가져 학교나 생활주변에서의 상담사례를 함께 토론하며, 부정기적으로 집단상담이나 교육연구모임을 통해 재교육 받기를 원하였다.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일정이 빨리 잡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했다. 그래서 때때로 내용이 부실하고 진행이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자원봉사자와 실습

생이 적절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행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청소년쉼터에서 본 청소년 가출문제는 단일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가출문제가 대부분의 경우 총동적이고 일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집단 상승가출형태를 보이면서 비행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청소년의 이러한 가출문제는 건전한 청소년 또래문화의 부재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상승 가출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은 특별하게 할 일도 없이 또래끼리 몰려다니며 배회하다가 악물, 도둑질, 폭력 등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출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또래와 함께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아동이나 성인들의 관계와는 다르게 매우 밀착된 형태로 관계가 형성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성인의 조언보다는 또래의 말 한 마디가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문제를 상담하는데 있어서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래상담자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도록 돕고 또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래상담자 프로그램을 중학생, 근로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층으로 확대·실시하는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 2. 학교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건강한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함께 보일 수 있다. 행동이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충족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때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

는 청소년은 이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서 비롯되는데 인정의 욕구가 좌절될 때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그의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켜 주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인정받고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은 학업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인정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소위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가출이나 비행 등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행동의 결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것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학교청소년의 경우는 대개 유·무기정학, 자퇴, 퇴학 등 징계위주의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징계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과 격리된 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지도내용이 되며 교내에 드러나게 되므로 '문제청소년', '비행청소년'으로 낙인되게 된다. 이렇게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이차적인 문제 혹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 중 약 70~80%가 서너번의 정학을 경험한 후 자퇴 형식으로 학교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징계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는 교사의 업무량, 시간, 재정 등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놀이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일상

프로그램 등 네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율성 존중, 자긍심 함양, 문제직면을 기본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상담프로그램은 집단상담과 심리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집단상담은 총 4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에서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고 구성원간에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우며 각 구성원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솔직히 표출하도록 한다. 2회는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제행동의 원인을 객관화시켜 지각하게 한다. 3회는 Role Play로서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을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탐색하게 한다. 4회에는 주어진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 문제, 해결방안을 정리하도록 하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계획하게 하여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증진시킨다. 심리검사는 적성진단검사와 성격진단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실시 후 집단 및 개인별 검사결과를 해석하였다.

문화프로그램은 비디오감상과 견학 등 야외활동으로 비디오감상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비디오를 선정하여 감상한 후 느낌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야외활동은 참가자들과 지도자가 함께 토론을 통해 야외활동의 장소를 선정하고 활동이 끝난 후 각자 느낌을 발표하게 하였다. 놀이프로그램은 총 3회의 공동체 놀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는 참가자들과 지도자가 서로를 소개할 수 있고 협동심을 필요로 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2회는 신체적 접촉과 활동을 필요로 하는 놀이로, 3회에서는 자기 자신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놀이로 구성하였다. 일상프로그램은 메뉴 선정, 음식만들기, 설거지 등의 조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식사 준비 및 뒷정리와 매일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일기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위탁교육 참가자들은 대부분 긴장감과 위축된 심리상태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대부분 없었고 상담에 대한 선입견(문제아들만 받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상담 초기에는 다소 어색한 태도로 임하였으나 곧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초기상담에서는 자기의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듯 하였고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단 전체적인 흐름은 진지하였으며 특히 4차 참가자들은 중학교 1학년임에도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참여하였다. 이 집단상담은 구조화된 것이었는데 프로그램 중 많은 부분이 정적이고 사고작용을 요하는 것들이어서 익숙치 않은 참가자들은 약간 지루하고 어려워하는 듯 하였다. 따라서 활동성이 있으며 집중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보강되어야 하겠다.

심리검사에서 참가자들은 성격검사에, 부모들은 적성검사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4차 참가자들은 적성검사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 결과를 자료로 삼아 진로결정시 활용하는 방법, 각자의 느낌과 장래계획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하였으며 참가자들 모두가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5차 참가자들은 적성검사의 결과가 중하정도였으며 성격검사에서 사회성, 동조성, 충동성 등은 비교적 높은데 비해 사려성, 책임성 등은 낮았다. 특히 충동성이 가장 높은 참가자가 집단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심리검사는 참가자가 자신에 대한 객관화된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자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상담자는 참가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집단의 역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징계를 받게 되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문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특히 감각적 오락, 유희환경 등은 청소년이 성인의 하위문화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며 또한 사고를 차단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탁교육 참가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놀이를 포함하여 비디오프로그램, 노래, 견학 등을 통해 볼 때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었고, 제시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비디오 관람시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비디오 작품의 내용과 토론에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관람과 토론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토론의 내용도 주로 표면적인 것들이었으며 5차 참가자 중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비디오 상영시간이 다소 길어 후반부에는 지루한 감을 주었다. 따라서 시간이 짧으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비디오 작품의 선정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야외활동(견학)은 일단 나들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5차 야외활동에서는 인사동 화랑가에서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참가자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야외활동(견학)은 참가자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강요되지 않은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야외활동(견학)장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가회동과 삼청동 등 쉼터를 중심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의 명소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탁교육 참가자와 부모들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참가자들이 경직되고 살벌한 분위기에서 특수한 문제청소년으로 대우받는다라는 선입견이다. 교육과정의 가장 첫 프로그램인 놀이는 이러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참가자와 지도자간의 친밀한 관계 수립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놀이를 통한 관계성은 집단상담시 빠르게 적응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이고 다른 친구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동안 징계기간 동안의 긴장감과 위탁교육에 대한 거부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과정의 참가자 수 5명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3~5명 정도로 가능한 놀이가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전통놀이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가자들이 가장 인상깊게 생각한 프로그램이 식사준비 과정에 참여한 것이었다. 간단하고 서둘러서만 식사를 준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열심히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상담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기록하게 되는 일기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하루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나열하는 형식이었으며 반성문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차차 감정에 대해 솔직히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서투르고 단편적이기는 하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기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징계중이라는 것을 의식한 의도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위탁교육 참가자는 100%가 유·무기정확 처벌을 받은 청소년이며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교육에 참가한 경우였다. 학부모나 청소년이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엄격한 정신교육’, ‘무서운 벌받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참가자나 부모들이 처음에는 매우 꺼려하는 태도를 갖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교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부모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위탁교육에 대한 선입견, 특히 부모의 선입견은 자녀가 보다 나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첫째, 기존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탁교육이라는 생소한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둘째, 교육에 참가한 자녀가 ‘문제아’로 낙인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셋째, 학생을 위탁하려는 교사가 위탁교육의 취지, 목적, 내용 등에 대해 부모나 청소년에게 상세히 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대상과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 전체 진행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의 배치, 프로그램 내용이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일정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던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공동체 놀이나 야외활동의 경우 참가자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합의된 내용을 바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 IV. 결론과 제언

### 1. 청소년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 1)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청소년쉼터는 지금까지 가출청소년과 지역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청소년은 통제받고 간섭받을 때 저항감을 느낀다. 따라서 잘못을 지적해 주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열린 대화를 통해 또래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구조화된 상담에서 벗어난 생활상담의 활성화, 청소년이 자기의 생각이나 선택을 재고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 주체의 실험교실 실시, 소집단활동의 활성화,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문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문화프로그램 등의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굳은 사고를 극복하고, 가출청소년, 지역청소년 등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2) 청소년쉼터와 가정

청소년쉼터는 타 상담기관이나 청소년단체에 비해 부모나 보호자와의 상담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적 접근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과 함께 그 부모도 청소년쉼터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강화시키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통해 청소년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상담, 교육, 가족단위의 자원활동 등을 제안해 본다.

### 3) 청소년쉼터와 학교

학교는 교육문제와 이로 인한 청소년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못하다. 징계학생에 대한 방치 내지는 자퇴(권유)가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을 학교교사에게만 전가시킬 수 없음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학교와 청소년기관(단체)과의 지지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청소년쉼터는 학교교사와 연대하여 청소년이 학교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탁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드러나는 교육, 청소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 청소년쉼터와 지역사회

지금까지의 청소년단체나 기관은 지역적 특성이나 과제 중심의 사업이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각 상담실이나 청소년기관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이용할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를 반영해 준다. 청소년들은 거대한 건물이나 첨단 시설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편안히 쉴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원한다.

청소년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랑방이 되어 이들이 가출청소년을 돕고 또한 가출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규칙이나 틀이 있는 곳이 아닌 청소년이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며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는 곳으로, 나아가 지역사회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 수행이 요청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청소년의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삼고 노력할 수 있는 지구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소집단 활동, 또래상담자 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교실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2.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 1) 정책적 측면에서

첫째, 가정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년,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족복지서비스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 및 청소년 학대가정 등 문제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내 체벌금지, 학교상담실의 전문적 기능 강화, 학교사회사업실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마련,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 여가, 문화활동 등을 위한 교육시설확충 등과 함께 민주적인 학교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내에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권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특히 비행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처벌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아무

런 대안책 없이 무작정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상 가정과 사회에서도 무소속 상태가 된다. 이들을 위한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교육 및 치료적 서비스 등 문제 정도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대책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학교에서 흡수하여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사회환경적 차원에서는 빈곤 및 비행다발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에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복지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의 공간, 시설 등을 지역사회마다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단위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전반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프로그램 측면에서

청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사춘기, 반항, 지도, 통제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부적응과 비행에 대한 선도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무자들이 청소년 중심주의의 과감한 시각전환이 요청된다. 이것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주체는 청소년 자신이어야 하며 참여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여 책임있

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여기에 성인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과정을 청소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 모든 청소년이 일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학교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상·공·실업계 학생, 근로청소년, 학교에도 근로 현장에도 속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 이미 소외의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이중의 심리적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현실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모든 청소년이 차별의식 없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지금까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행사성의 일회적인 것이 많아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규모의 행사보다는 소집단 형태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누고 기능성에 대해 시도해 보는 실험적 성격의 프로그램과 급속히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현실이 반영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스스로의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탐구하고 실험하고 고민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들의 세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관람문화를 지양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적인 활동을 돕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문제론, 서원.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1호 통권 제4호, 1991 봄.
- \_\_\_\_\_ (1992), \_\_\_\_\_, 제3권 제4호 통권 제11호, 1992 겨울.
- 전환기 한국사회와 청소년운동, 청소년운동연구 자료모음 제1집, 대한 YMCA연맹.
- 삼성복지재단(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 구조, 청소년학술세미나자료집.
- H.Dean Gray, Judith a Tindall, 설기문 역 (1991), 동료상담훈련론, 형설출판사.
- 한국사회복지학회(1993), 한국사회복지전달체계와 임상사회사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백서.
- 한국여성개발원(1993), 성폭력상담원훈련프로그램.
- 한국청소년학회(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대책.
- 조은, 조옥라(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 출판부.